

보이지 않는 이들의 열정이 아름답습니다



소방관들의 간담회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기 시작 2시간 전·후부터 배치되는 광주 소방관들. 경기일정이 모두 끝난 밤 10시 40분. 경기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 사무소에서 소방관들이 근무 종료 회의를 하고 있다.



모기와와의 한판 전쟁

경기장과 훈련장 안쪽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을 접수한 조직위는 경기가 종료된 밤 11시 무렵부터 방역팀을 동원해 모기들이 즐겨 서식할만한 곳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 경기장 시설이 워낙 넓은 탓에 방역활동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세계 194개 나라에서 광주를 찾은 총 5128명의 선수들이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등 6개 종목 76개 세부경기에서 더 나은 기록과 성적을 위해 기량을 겨루고 있다.

24일 현재 대부분의 경기가 종료되고 수구에서 순위 결정전과 경영 세부 종목들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수들이 뜨거운 경쟁과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들로 가득한 경기장.

그 경기장 안과 밖에서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이들의 열정도 함께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철저한 경비순찰업무 중인 군인과 경찰,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관중석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소방관, 선수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차량 안내요원이 있고 모든 경기가 끝난 후야 움직이는 이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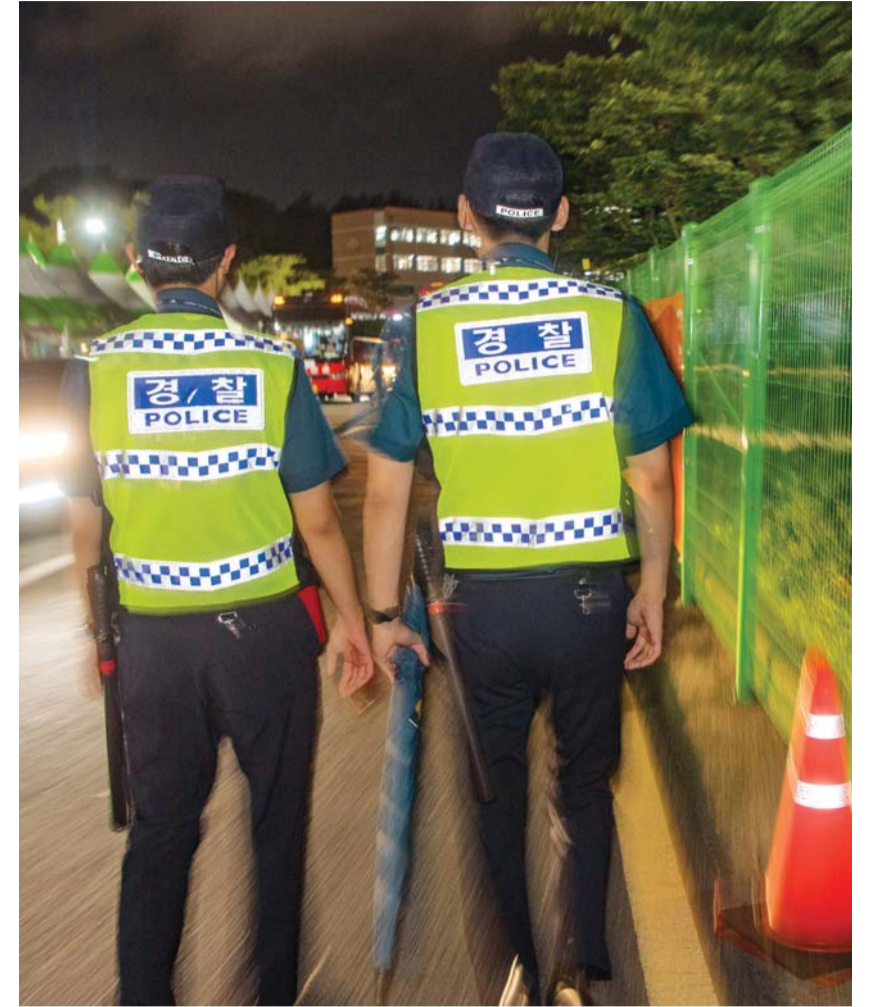
경영 경기가 끝난 지난 23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일원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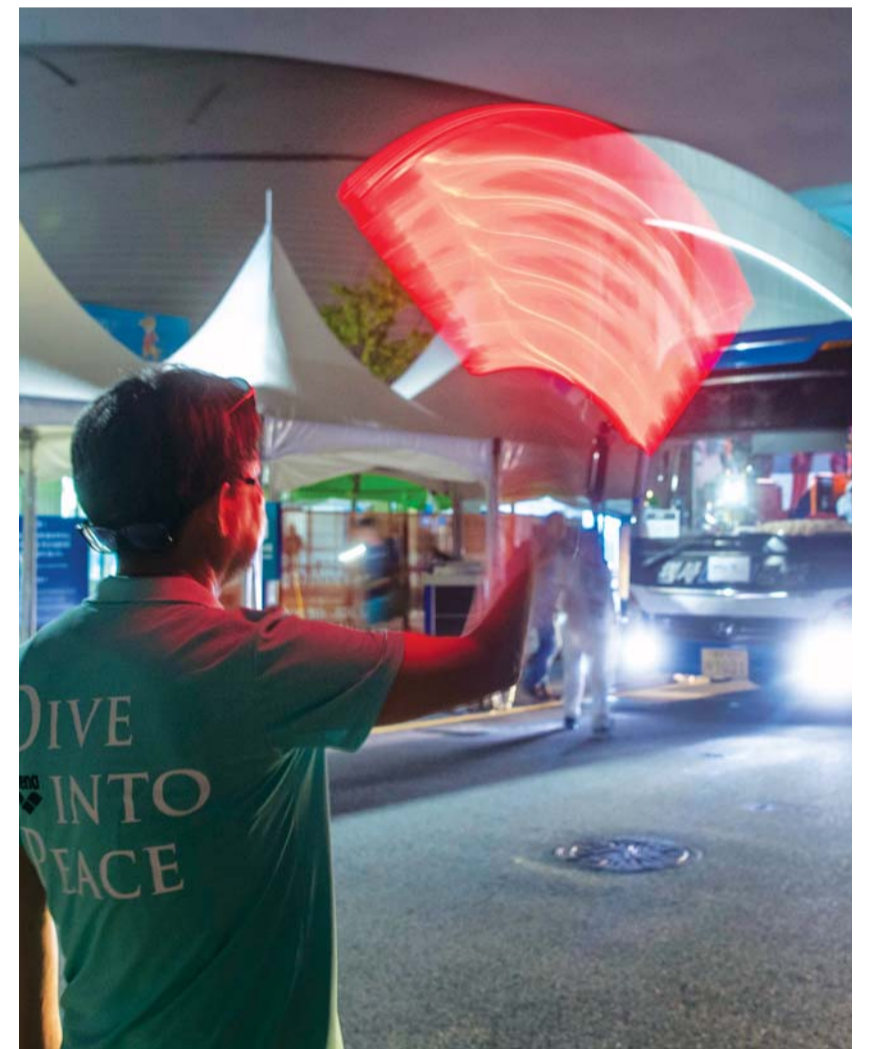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져 온 쓰레기 가져가세요

경영 경기가 진행될때 심판 등 대회 임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운영요원들. 이들은 경기가 끝나고 관람석을 돌며 버려진 생수통 등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24시간 계속되는 순찰활동

밤 11시 2인1조로 꾸려진 경찰 경비인력들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다. 주경기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24시간 동안 경기장 주변과 내부 등을 순찰하며 만일의 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량 안내요원의 수신호

늦은 밤 자원봉사요원이 경광봉을 이용해 차량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기 일정을 마치고 선수촌과 숙소로 돌아가는 선수단과 임원들의 안전한 이동은 이들이 책임진다.



남부대학교 관측소

대회 주경기장인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내 건물 옥상 관측소에서 31사단 장병들이 수구와 경영이 진행되는 주경기장과 수구경기장 일대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경기 종료 이후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